



김제 공덕면 새싹협동조합 김경성 조합장, 성금 기부

김제시 공덕면 새싹협동조합 김경성 조합장은 지난 13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100만원의 기부금을 공덕면에 기부했다.

새싹협동조합은 추석을 맞이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루비에스(미니사과), 사인머스크 등 공덕면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을 열었다. 다양한 농산물 판매 전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공덕면 새싹협동조합은 시민들이 공덕면의 다양하고 신선한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공덕면 줄음쉼터 내 간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성 조합장은 “새싹협동조합은 이번 나눔을 통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길 희망한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인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복한 공덕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소방서, 버섯 따리 산에 간 실종자 안전하게 구조

진안소방서(오정철 서장)는 지난 13일 오후 18시 36분경 진안군 청천면 천왕사 인근 뒷산에서 길을 잃은 실종자를 밤새 수색을 벌여 안전하게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진안소방서에 따르면 상전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A씨)이 일행과 버섯을 따러 올라갔다가 낙오되어 내려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소방서 인력 20명 (소방 14명, 정찰의용소방대 6명)이 동원되어 수색 끝에 천왕암 부근 뒷산에서 요구조각가 메가폰 싸이렌 소리를 인식하여 새벽 3시에 구조대원이 실종자를 발견했다.

안전구급대는 실종자의 혈압 및 맥박 측정 등 확인한바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보온 조치를 한 뒤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서, 사망사고 제로로 명절 치안 확보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추석 전·후 기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 교통안전 근무(자치경찰사무)를 펼쳐 평온한 명절 치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방문객들이 불비는 승화원, 재래시장 등 상습 혼잡구간에서 교통경찰 수신호를 통한 정체구간·소통 확보활동과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교통정리 등으로 사고를 예방했다. 결과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지역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건으로 사망자는 없으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형 경찰서장은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큰 사고사고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남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6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 개최

유공자 표창 · 소외계층 발굴의 날 캠페인 · 축하공연 등 진행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14일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원, 사회복지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제16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부대서비스(캘리그리피 부채, 타투체험)와 축하공연(비단·퓨전국악, 씬드 랍스·통기타), 사회복지인 대표의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과 사회복지의 숨은 일꾼을 찾아 표창을 전달했다.

또한 좋은 이웃들을 봉사자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봉사자, 사회복지주민도움센터 관계자들은 ‘소외계층 발굴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들 및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흥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유공자 표창은 진안군수상 윤안순(정천면사무소 및 출협복지팀), 진안군의장상 김귀숙(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임경빈(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태영(육군제35보병사단 103여단 1대대부귀통합면대 면대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 정옥희(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안천면 지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장상 김진란(유나눔푸드 부장),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 이재성(진안군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수상했다.

김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진안군 내 사회복지사 및 협의회를 통해 행정의 지원과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구석구석 외로운 분들, 정이 필요한 분들, 사람이 그리운 분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고맙다”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 연갤러리 정혜숙 대표,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부안읍 소재 연갤러리(대표 정혜숙)는 13일 부안군 근로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혜숙 대표는 지난달 26일 물의거리 광장에서 열린 생활자원 풀리미켓 행사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으며 “부안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대학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소방서, 119대체 신고서비스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대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119대체 신고서비스는 문자, 영상통화, 119앱을 통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문자신고는 119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119 상황실에 접수되며,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음성통화가 곤란한 청각장애인·외국인도 수화나 손짓, 글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19앱 신고는 앱을 다운받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GPS 위치 정보가 전송되어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유용하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119대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음성통화 신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위급상황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